

오늘은 골로새서를 빌립보서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낮에 안산에서 공부를 했는데 요한일서 4장을 공부했어요. 거기 4장 18절에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요일 4: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한일서 4장 18절, 성경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될 줄 믿지요? 믿는다면 이것이 실제라면 형벌은 누구한테 오는가 하면 두려워하는 자에게 형벌이 오는 거예요. 형벌이라는 것은 당하면 싫잖아요. 매 맞기 싫지요? 당하기 싫지요? 벌 받기 싫지요? ‘형벌’ 이니까 ‘형’ 을 생략하면 뒤에 따로 나오는 것이 벌을 받는 겁니다.

벌은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벌은 누가 받는가? 누가 맘매 하지요? 나쁜 짓 할 때 벌 받지요. 그런데 성경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인간이 나쁜 짓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데 인간이 나쁜 짓했기 때문에 뭐가 따라오느냐 하면 두려움이 온다는 겁니다. 나쁜 짓 하니까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이 오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벌 받게 되어 있고, 누가 벌을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신데요. 그러면 벌을 안 받으려면 여기 두려움 앞에다 한 자를 넣으면 돼요. 두려워하는 사람이 벌을 받기 때문에 벌을 안 받으려면 ‘안’ 자를 넣으면 돼요. 안 두려워하면 벌 안 받겠지요.

그런데 세상에 살면서 아침에 눈만 뜨면, 코만 뜨면 세상이 워로 짝 다가옵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짝, 땅겨온다 이 말이죠. 두려움으로 이것을 할까? 말까? 그것도 두려움, 무단횡단 할까? 말까? 그것도 두려움, 과속을 할까? 말까? 그것도 두려움, 지금 김장김치를 사는 게 좋을까? 나중에 사는 게 좋을까?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도 두려움……. 계속해서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가를 소개해 놓았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21:8 절에 보니까 두려움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유향불에 벌 받는데, 하나님의 벌이 유향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옥 불 들어가는 거죠. 지옥 불에 들어가는, 벌 받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사람인데 어떨 때 두려워하느냐 하면 21장 8절에 보니까 유향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같은 말이 믿지 않는 자들…….

**계 21:8**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 하는 자들은 불과 유향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번지점프 하는데 발목에 밧줄이 잘 묶어져 있는데 ‘자, 밧줄 믿고 뛰세요!’ 하는데 안 뛰는 거예요. ‘밧줄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밧줄이 풀리면 죽지요. 물에 빠져 죽고 땅에 바쳐 죽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밧줄이 안 풀린다는 겁니다. 밧줄이 풀리면 죽는 거 맞는데 밧줄로 꽁꽁 묶어 놓았기 때문에 풀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 죽습니다. 이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과 똑같은 말이 뭐냐 하면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사람이 성질 받치면 사람이 흉악해지는 거예요. 또는 믿는 분이 없으니까 자기가 불리하다 싶으면 사람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살인까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행동까지 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마술을 하고 점을 치고 굿하고 그것과 같은 것으로 우상숭배하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니까 하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고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사람은 바로 두려움을 보여주는 사람이고 벌벌 떨면서 산행하면서 떨고 죄지 으면서 떠는 이런 것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구석은 자기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보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이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어있어요. 벌받기 위해서 유향불이, 지옥불이 있다는 겁니다.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 했잖아요. 벌을 안 받으려면 두려움 앞에 무엇을 붙인다? 안 두려움이죠. 안 두려우면 믿지 않는 자가 되지 않고 반대로 하면 믿으면 돼요. 믿으면 안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고 믿으라고 제시한 분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하면 믿으면 뭐가 생기지 않을 정도로 믿을만한 분이냐 하면 믿기만 하면 두 번 다시 두려워할 세상의 어떤 일을 일어나더라도 지진이 나더라도 IMF가 터지더라도 집안에 불이 나더라도……. 어떤 일이 나더라도 안 두려워할 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이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지금 우리 집에나, 우리 몸이 아프다던 지, 또는 교회나 직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 정도로 온 천하보다 더 훨씬 좋은 분이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믿으라고……. ‘예수 믿는데도 두려움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그 가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약간만 믿는 척하고 있을 뿐이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깜작 놀래요. 아, 온 천하를 얻는 것 보다 더 훨씬 낫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안 두렵습니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두렵습니까? 밥 먹고 사는데 두렵고, 뭐가 두렵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시면서 계속 두려워한다면 여기 뒤에 따라오는 것이 줄줄이 여러분들의 하나의 딸랑딸랑 방울처럼 소리 내면서 우리를 사는 게 힘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식으로 살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이 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뭐냐? ‘너는 세상 살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 해? 너 자신과 너의 미래와 너의 6개월 뒤, 1년 뒤 그리고 취직시험, 결혼문제, 여러 가지 교회

에 다니는 문제……. 왜 너는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다가서느냐?’ 그것이 지금 두렵기 때문에 살아갈 때도 힘들고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벌이 있기 때문에 또 낭패고 몸이 아프다고 자살해 버리면 결국 그 사람은 뭘니까? 두려워하는 자 이죠.

그러면 “일찍 오시는 분에게 보너스 드리겠습니다.” 일거의 안 두려워 할 수 있는 말을 해 드리겠습니다. 애들은 가지 말고 애들도 오세요. 날이면 날마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 바다에 사이다가 뗏으면 그거 보다 더 큰 컵을 드릴 테니까 …….(ㅎㅎ) 지금 여기에 두려워하는 형이 있는 이 구조, 체제가 근본사상이 무엇이기에 자꾸 두려움이 생기느냐 하면 제가 크게 쓰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가 만든다.’ 바로 이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일거에 이것을 날려버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라의 존재는 하나님이 만들어요.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장, 3장 ……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아주 기발한 것 이야기 한 게 아니에요. 침착하게 정신을 차리고 창세기 1장부터 다시 보세요.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부터 출발하면서 그 뒤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등장합니다. 누가 누구를 만든다고요? 우리가 하늘을 만든다고요? 아니죠. 우리가 나를 만든다고요? 아니죠. 그러면 성경 창세기 1장을 대하면서 단박에 우리는 두려움이 날아가 버리는 좋은 기쁜 소식이 나오죠.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인간은 인간도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 때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식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이 만든 재료가 아닌 선악과를 집어넣어 버리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아니니까 도로 그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선악과 없이 만들었는데 선악과를 따 먹으니까 도로 흙에서 사람 되었다가 다시 사람에서 흙이 되었죠. 그러면 사람이 흙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진짜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구나가 그 글로 인해서 확인되지요? 그게 얼마나 즐거우냐 이 말입니다. 학급의 미술시간에 미술선생님이 사과하고 바나나를 놓고 “학생 여러분, 이것은 진짜 바나나와 진짜 사과입니다. 조화로 만든 딱딱한 사과, 바나나가 아닌 진짜입니다. 이것 보고 오늘 정물 그림을 잘 그려서 제출하면 잘 그린 사람에게 잘 그린 사람에게 점수 주겠습니다.” 하고 난 뒤에 보통 미술 선생님은 놀러가요. 음악선생님은 죽어라고 노래 부르지만 툭 던져놓고 밖으로 놀러 가요.

놀러간 사이에 아이들이 “저거 진짜 바나나다” “아니야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야. 작년에 만들었으니까 이거 가짜야” “아니야 진짜야” “아니야 가짜야” 이렇게 싸우다가 “좋다 그럼 한번 먹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먹어보니 진짜 바나나, 진짜 사과가 맞는 거예요. 선생님 어제 시장가서 돈으로 산 진짜 과일이 맞는 거예요. 그 때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림 다 그렸어?” 하니깐 어떤 애는 이빨 자국 난 바나나 그리고 어떤 애는 반쪽 난 사과 그려놓고……. “사과 왜 이래?” “선생님 우리 반 어떤 아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먹어봤습니다.” “먹어 보니까?” “먹어보니까 진짜 과일이 맞습니다.” “왜 그

러는데?” “이빨 자국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겠어요? 진짜 맞는 말이겠어요? 맞는 말이겠죠. 선악과 따먹으면 진짜 죽어서 흠으로 가는 게 그게 맞으면 그게 맞는 말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약속, 그것도 맞는 말이겠습니까? 틀린 말이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말씀이 맞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 저 사람 저렇게 죽는 것 보니까 이것은 원래 만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착해도 내가 알아서 착하겠다고 우겼던 그 게 죄이구나! 뭐든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만들어 졌으면 다 하나님의 숨씨이고 하나님 앞에 작품입니다.

내가 만들었을 것 같으면 두려움이 발생돼요. 내가 만들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 “잘 만들어야 될 텐데, 천국 가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빼끗 실수하면 지옥 가는데 아니 큰일 나지, 나는 나를 잘 만들어야 돼…….” 모든 게 두려움입니다. “성경말씀을 지켜야 될 텐데, 오늘은 10개를 지키자, 아차 8개밖에 못 지켰네. 2개를 못 지켰으니까 아하 오늘 주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또 지옥이다.” 모든 게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발생의 전환이라 하죠. 생각을 뒤집어 보세요. 오늘 내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도 하나님이 보게 하셨고, 내가 지금 살아 있는 것도 내가 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주께서 다 작품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주인장께서 나를 알아서 이만큼 만들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순간 뭐가 짹~ 하고 빠져나가요. 설사하고 나면 속이 시원하죠? 소변을 보고 나면 시원하죠? 뭐가 빠져나가요? 더러운 것들이 빠져나가죠. 뭐가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도 빠져나가면 두려움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미네랄, 비타민도 빠져 나가죠. 흉악한 것들, 살인한 것들 행음한 것들, 점을 왜 칩니까? 두려워서 그럴잖아요. 왜 두려워합니까? 누가 누구를 만든다? 내가 나를 만들려고 하니까 점이라도 쳐야겠고 굿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우한이 있어서 애들이 실실 앓는다! 굿하자 이렇게 나올 때 우한이 있던 실실 앓던 그거 누구 작품입니까? 하나님 작품이잖아요. 그러면 굿을 왜 합니까? 두렵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가 어떤 사람은 죄짓는 것도 있고 착한 것도 있다 하는데 저는 적극 반대 합니다. 사람은 죄짓는 것도 있고 착한 것도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태어나면 하는 모든 짓거리가 내가 선악과 따먹고 내가 나를 살게 하겠다는 이유 때문에 태어나면서 두려움, 두려움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자기 땀에는 고아원방문해서 구제하고 착한일 해 봤자 그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두려움이 깔린 이상 그것은 ‘두려움이 있는 자리에는 형벌이 있으리라’ 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벌이 있어요. 나를 내가 주인이라고 하니까 자꾸 두려운데, 나는 나의 작품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의 작품입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일거의 두려움은 어디 갔나?’ 할 정도로 두려움이 싹하고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다시 이야기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려고 하니까 돌아다니는 두려움이 사서 고생을 해

요. 저 멀리 10기로 멀리 간 두려움까지 찾아와서 그 귀신들이 나에게 들어오지만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도 이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기적적인 솜씨인 것을 인정한다면 여러분들은 과거의 후회라든지 현재의 결핍이라든지 미래의 모호함이라든지 애매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게서 손을 떼세요. 부탁해요~ㅎㅎ

여러분 자신에서 손을 떼시고 구경하세요. ‘내일은 또 어떻게 나를 만들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멋진 솜씨, 저는 기대됩니다.’ 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계속 두려워요. 이것 가지고 만족스럽지 않아요. 완전히 두려움을 내쫓으려면 만약에 나는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만든 작품이라면 우리는 이 작품이 잘됐는지 못됐는지 누구하고 비교를 합니까? 나는 누구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남하고 비교하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나는 누구하고 비교하겠습니까?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작품들과 비교하겠죠. 그 작품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12제자가 되겠죠.

12제자 전부가 예수님 배반하고 심지어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부인한 인간들도 주님의 작품으로 어디 갔어요? 천국 갔지요. 엘리야가 자기가 쫓겨나게 되니까 뭐라고 장담했냐하면 ‘현재 이스라엘에서 나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했지만 착각이었습니다. 몇 명 있었어요? 남은 7천명이 있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렸죠. 그럼 엘리야 지옥 갔습니까? 아니죠. 변화산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변화산에서 예수님 누구하고 이야기해요? 엘리야하고 이야기하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실수하고 틀려도 지금 어디가 있어요? 천국 가 있잖아요. 그렇게 못난 엘리야도 천국 가는데 잘난 우리가 천국 왜 안가겠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변화산에 보니까 모세가 이야기 하고 있어요.

천국은 못난 사람 가는 거예요. 못나던 잘나던 자기가 스스로 따지지 않고 못나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예쁜 것이고 못나 보이는 작품도 훌륭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대작품전에 가보면 작품이 해괴망측합니다. 그런데 전부다 한 10억대, 50억대 되는 작품들이에요. 열심히 그려봐야 우리는 돈 그만큼 안 나옵니다. 그런데 유명한 작품들 우리는 저게 무슨 작품이야 하지만 다 비싼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든 작품이라면 하나님께서 신경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 비싸요. 온 우주보다 비쌉니다. 우리 몸이 온 우주보다 비쌉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하나님의 손때가 묻은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별이 있지만 이것이 바로 내가 스스로 인생을 살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얻어맞으려고 매를 벌어요. 이제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신다고 한다면 이것은 형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로 만드느냐 하면 사랑과 용서로 만들죠.

사랑과 용서로 만들면 여기에 세리나 창녀나 강도도 사랑이 오면 훌륭한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유럽 프랑스 파리에 루브르 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거기에 안 갔습니다. 못 갔죠. 돈이 없고 시간도 없어서……. ㅎㅎ 거기에 모나리자라는 작품이 있는데 파리에 갔다 오신 분이 말하는데 모나리자를 보려면 줄을 그렇게 뱅뱅 돌아가면서 많이 섰데요. 왜 그런가하면 딱 10분간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밖에 대기하고 있다가 10분하고 교체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10분간 보여주면서도 그것이 삼중방탄유리로 되어서 어떤 미친 사람이 와서 총을 쏘도 총알이 튕겨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비싸겠어요? 진짜 모나리자 작품은 나라 하나 다 팔아도 못 살 정도로 비싼 작품이 모나리자 작품이에요. 프랑스 보다 더 비싼 것이 모나리자 작품이에요. 그런데 그 작품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화로 그렸죠.

그런데 이 세리와 창녀, 강도는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유화로 만들었습니까? 방금 뭐라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사랑과 용서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피로 값 주고 모나리자보다도 더 값진 작품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작품을 남들하고 비교해서 “내가 못났다. 인생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지” 왜 남들하고 비교 하나 말이죠. 모나리자라는 그 유명한 작품이 루브르 박물관 삼중방탄유리 안에 있지 않고 서울에 영등포 옆에 쓰레기장에 툭 던져 놔다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보고 “아이고 눈썹도 없는 아주머니 그림이 왜 여기 있어? 어디서 쓰레기를 버려놨어?” 비교하면 “이거 고물한 5천원 주면 가져가세요. 액자 값도 안 된다.” 이렇게 할 거다 이 말이죠. 삼중방탄유리가 아닙니다. 아이들 밟고 다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작품이라고 피 흘려 피 묻힌 모나리자보다 더 귀한 작품을 왜 그런 모나리자가 자진해서 악마가 만든 작품과 왜 영등포 쓰레기장에서 같이 비교를 해요. 나이트클럽에서 누가 더 춤 잘 추냐를 비교 하나 말이죠. 예수 믿고 댄스 배틀하라고 예수 믿습니까?

용서 받았다는 게 그 용서가 아무나 주는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가 묻어 있으면 모나리자보다 더 비싼 작품이에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모나리자 보다 더 귀한 작품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세상 사람을 이기려고 K2에 나가서 노래자랑하고 …… .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말이죠. 전화해서 투표 던지고……. 여러분들이 표를 던지려면 그런데 표 던지지 말고 예수 믿는 성도에게 표를 던져주세요. 예수님의 피만 자랑하는 자에게 표를 던져 주세요. 그리고 여자 분들이 결혼을 하려면 세상 적으로 성공한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물방울 벅타이 하고 결혼한다고 하는데 물방울 벅타이와 결혼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하고 결혼하세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작품입니다.

축복이 끊어질 날이 없어요. 저주는 벌써 날아가 버리고 축복이 그 자리를 대체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까지 학력 경쟁, 돈 경쟁, 현금 경쟁, 전도 경쟁, 봉사 경쟁, 목사에게 인정받기 위한 경쟁, 윤리 도덕적인 경쟁……. 꼭 바리새인들처럼 집단으로 모아 놓은 것처럼 그런 식의 더러운 것 고집어내고 선악과 고집어내고 누가 선악과 많이 따 먹는가 자랑하듯이 개혁주의자들, 성화론자들……. 선악과를 아예 한 트럭을 먹었어요. 선악과 한 트럭 먹어도 생명나무 요만큼 먹은 만큼 못합니다. 선악과 먹으면 지옥가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저주받아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요거 하나만 따먹어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작품을 위해서 생명나무를 못 따먹는 생명나무까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일부로 그 사람 속에 집어 넣어주시잖아요. 집어 넣어줘서 너희가 보기에 선창아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온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입니다. 양 99마리 있지만 하나님께서 찾는 양은 한 마리 양이에요. 어떤 양? 회개하고 돌아오는 양, 한 마리 양이에요. 99마리 양이 토실토실하게 자랑해

도 주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이야기 하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교회에서나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적인 하나님하고 완전히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서 말을 못할 정도로 이런 말을 하면 내가 미친놈 취급받아서 말을 때지 못하겠어요. 너무 달라서……. 그 정도로 이 세상은 아주 위험한 세상입니다. 그러려면 남들이 안 알아준다고 짜증부리지 말고 징징거리지 말고 본인부터 본인의 힘으로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이만큼 살려 내고 있다는 주님의 솜씨에 감격하시고 탄복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를 하면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골로새서가 상당히 꽤 어렵기 때문에 쉬운 쪽으로 해석을 해서 귀를 트이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에베소서를 사도바울의 편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골 1: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 1:2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사도바울의 편지라 말이죠. 그런데 사도바울의 편지인데 사도바울의 편지는 자기가 지어 낸 거예요? 아니면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사도바울은 누가 만듭니까? 사도바울 본인이 애써서 자기가 사도일 합니까? 아니죠.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만드신 사도바울에게 편지를 쓰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는 누구만 이해되겠어요? 동일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도에게만 이 편지가 이해되겠죠? 그렇죠? 같이 만들어진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진 사람이냐 아니냐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하면 예수님이 사도바울 만들 때 방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같은 방법이 역시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가 이 편지를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타500, 다 먹었습니다. 석수가 있습니다. 사도바울에게 예수님이 석수를 줬다면 우리가 만약에 다 먹은 비타500을 받으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편지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다 같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천국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생명나무를 얻기 위해서 사도바울에게 이 석수를 줬다면 우리도 석수를 받아야 사도바울이 갔던 천국에 우리가 함께 합류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때 만약에 금요일에 소풍을 간다면 학교선생님이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분명히 칠판에 크게 써놔요. ‘내일 소풍가는데 아침 10시까지 두루 공원에 모여라!’ 분명히 크게 써요. 두루 공원에 모이라고 하면 모이면 되는데 꼭 그 중에 몇 명은 달성공원에서 모여요. 거기 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학부모에게 연락해서 30분 늦어져서 먼저 온 사람 짜증내고 그러는 거예요. 소풍가면 두루 공원에 모여서 같이 가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사도바울 되게 했던 방법이 석수를 주는 방법이라면 그 방법에 다른 방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에이 사도바울은 그런 식이고, 우리는 다른 방법이지”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사도바울을 사도바울 되게 했던 그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 사도바울의 편지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식으로 너는 천국가게 되었다는 그 방법이 적힌 것이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 편지가 사도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내

용이면 읽고 찢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편지를 써서 너만 읽지 말고 누구도 다 읽게 해라? 모든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줘라! 왜, 거기에도 너 같은 사람, 내가 만든 작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그럼 목사님, 사도바울은 어떤 식으로 구원이 되었고 지옥 갈 인간이 어떻게 천국 가는 인간이 되었습니까? 아, 궁금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뭐라 했냐하면 처음 시작하기 전에 요한일서 4장 18절, 두려움에는 형벌이 온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는 벌이 온다. 성경을 떠나서 인간에게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온다.’ 는 말 대신에 우리는 이려고 싫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두렵게 산다.’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감내 할게요.’ 하겠는데 성경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많이 두렵나?” “많이 두렵습니다.” “고생 꽤나 해라.” 말로 이정도 끝나면 “에이 예수 믿느니 차라리 두렵게 살려다.” 이렇게 편하게 있으면 될 텐데 두려운 자에게 뭐가 온다고요? 하나님의 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다 지워 버려봅시다. 두려움도 지우고 형자도 지우고 다 지우고 딱 한자 남겨둔다면 결국 무슨 자만 남습니까? “벌” 뒤에 뭐 하나 붙인다면 “벌 받는다.” 누가 개입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개입하지 아니하면 사도바울이고 뭐고 간에 뭘 받는다? 벌 받는다. 벌은 무슨 벌인가? 회초리로 손바닥 맞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지옥 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은 뭘 해도 지옥 간다. 지옥 유향불에 간다. 저주 받는다. 영원한 벌을 받는다. 성경의 출발점이 뭐냐 하면 “에라 이 영원한 벌 받을 인간아!” 그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벌 받는다” 여러분, 제 말에 지금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겁니까? 속아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할게요.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네가 많이 두려워 할 것이다.’ 라고 했으면 우리가 교회도 가끔 나오고 교회 안 나와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네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하나 자식을 키우나 장사를 하나 교회를 나오나 하여튼 뭔가 두려움에 떠는 자에게는 뭐가 찾아온다는 말입니까? 저주와 심판과 지옥불이 늘 기다린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영화에 귀신이 산다는 영화가 있는데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느낌이 뭐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 제가 연세 많으신 어머니를 며칠 동안 돌보면서 무엇을 느꼈느냐 하면 연세가 8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쇠약하죠. 정신적 육체적으로 쇠약하신 분을 옆에서 나름대로 모시면서 느낀 점이 내가 무너지는구나! 우리 어머니만 약해서 무너져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인생 망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아, 처음부터, 날 때부터 인생은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무너집니다. 화로다 나는 망해야 될 자가 망하는 거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커가는 아이들은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는 매일 매일 자라나요. 쑥쑥 자라나요.” 하지요. 쑥쑥 자라나봐야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크면 망가져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주저앉는 것도 숨차게 앉고 키가 좀 작아야 덜 아픈데 꺾다리같이 크면 획 넘어질 수가 있어요. 전부터 인간은 무너지고 있어요. 그것을 내가 왜 몰랐던가? 그래서 아직 팔팔하다고 조깅하면 건강 유지된다고 했는데 막상 그런 어머니를 가까이서 모시고 보니까

어머니나 저나 지금 무너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밑에서 축대 흙이 주르륵 흘러 내려 앉아요. 막 내려앉는 것 같아요. ‘참, 어머니는 좋겠다. 빨리 내려앉으니……. 나는 좀 더 있어야 내려앉는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바울에게서 ‘하나님 저 사도 시켜주세요.’ 라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벌 받아야 되고 나는 지옥 가야 된다.’ 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것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지옥가도 싸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벌 받아 마땅하다.’ 왜? 우리 조상이 그러니까……. 조상 때문에 우리는 생명나무 못 따먹었으니까 선악과 저주를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해 봅시다.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작품이 됐다면 그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 방법을 골로새서라는 편지로 우리에게 적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 편지를 이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바울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만 그 편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설사를 해 본 사람이 설사약의 효용이 좋다는 것을 알고, 배 아픈 사람이 약 먹으니까 낫는 것을 알듯이 우리가 똑같이 배를 아파봐야 그 약의 효과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도바울이 구원받는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바울이 느낀 것과 동일하게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있는 자리가 뭐였습니까? “나는 벌 받는다.” 라는 자리입니다. 이유를 묻지 마세요. “재는 2살인데?” “2살이고 1살이고…….” “아, 저는 연약한 여인인데…….” “연약한 여인이고 강한 여인고간에 그럼 강한 여인은 지옥가란 말입니까?” 그럼 이슬 먹는 사람은 천국가면 그럼 이슬 다 먹겠네요. 나중에 숲에 가면 이슬을 팔겠네요. 이슬 한 병에 만 오천 원……. 김장김치도 안 먹고 이슬만 먹고 살아요. ㅎㅎ 이 세상을 하나님이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에게 왜 “착해라, 훌륭해라” 라고 이야기를 안 하느냐 착해도 지옥가고 훌륭해도 지옥가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태어난 것 자체가 처벌이고 태어난 것 자체가 지옥 가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한건데 새삼 지옥 갔다고 너무 억울해 하고 애통해 하지 마라 말이에요. 당연히 네가 갈 곳이 거기니까 네 조상이 간 것처럼 가야 하니까…….

“벌 받는다.” 가 되어야 비로소 사도바울의 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여러분 알아 맞춰보세요. 여러분 하나의 벌이 개인적으로 옵니까? 단체로 옵니까? 아, 이번 질문 어렵죠. 1번 단체벌이다. 아니면 2번 개인벌이다. 숙제를 안했을 때 단체로 벌 받습니까? 개인이 벌 받습니까? 개인이 벌 받는데 또 미친 교사가 기분 나쁘다고 단체로 벌 줄 수 있어요. “왜 네 친구가 숙제 안했는데 관심 안 뒀어!” 하면서 “숙제 한 너도 맞아라!” 하고 단체로 맞을 수가 있어요. 교사가 부부싸움해서 기분 나쁠 때 성질부릴 때 그렇게 합니다. 단체벌이나 개인벌이나를 어떻게 아느냐 하면 만약에 단체 벌 같으면 구원이 단체구원이 되겠죠. 만약에 개인 벌이라고 구원은 뭐냐 하면 개인용으로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야야, 너만 구원 받아! 다른 사람은 알려 주지 마! 내가 너의 맞춤구원이야” 라고 썼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골로새서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개인적으로 구원하는 겁니까? 단체로 구원하는 겁니까? 이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골로새서 1장 2절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곧 그 다음에 뭐죠? 그리스도 안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몇 명을 상대합니까? 달랑 한명입니까? 여러 명을 상대하는 겁니까? 여러 명이죠. 개인구원이 아니고 단체구원이죠. 단체구원이란 말은 별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나쁜 사람만 별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로 다 별이 온다는 것이 여기서 밝혀졌잖아요.

골 1:2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찌어다

전체가 다 별 받기 때문에 이 전체 중에서 ‘나는 예전보다 더 착해야지’ 하는 것이 성립된다? 성립 안 된다? 성립이 안 됩니다. 2학년 2반 단체로 별 받으면 “선생님, 저는 2학년 2반이지만 반장이니까 저는 재들하고 달라요.” 라는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지요. “저는 목사니까 빼주시고요, 제 말 안들은 교인들, 집사들이나 별주세요.” 하는 것이 안 되죠. 제 말이 맞죠? 그렇다면 반대로 해 봅시다.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 합시다. “하나님 제가 목사니까 구원 받았습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왜냐, 다 같이 받을 별을 다 같이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여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가 아니고 내가 잘나서 구원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아닐 때 그것을 뭐라 하느냐 하면 “예수 안에서 구원 받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말 안에 그 구원에 있어서 개인의 우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서 개인적인 구별은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편지를 볼 때 주의 깊게 보아야 하고 관찰해야 됩니다. 미술학파에서 인상주의 학파는 그 햇빛이 무채에 치는 것 까지 묘사하기 때문에 모호하고 흐릿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더 관찰해 보면 햇빛이 비치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아주 깊이 관찰 있게 보면 한자 한자가 무의미하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연줄로 연결되어서 예수 안에서 구원 받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더 이상 차별이 없다는 상급에도 차이가 없고 예수 안에서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더 의로운 사람이 있고 덜 의로운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도 잘못됐죠. 예수 안에 있을 때는 더 의로운 사람도 없고 덜 의로운 사람도 없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개별적인 행함은 통합니까? 통하지 않습니까? 통하지 않죠. 개별적인 행함이 소용없는 것을 가지고 뭐라 합니까? 믿음이라합니다. 개인적인 행위가 내 구원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나 말고 다른데서 구원의 근거가 있음을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의를 만들어서 우리 대신 만들어진 의가 예수 안이라는 공간을 만들었고 그 공간 안에서 사도바울이나 우리나라 다 같이 구원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의존교회에서 방금 “편지요” 하고 받았다 합시다. 편지를 받자마자 1장 2절에 예수 안에서 형제들,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예수 안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편지를

보지도 말고 그냥 옆 사람에게 넘겨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를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누구 안에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인간을 만드는데 만약에 내가 인간을 만들어 버리면 누가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서는 필요 없고 내 안에서 나를 만들기 하는 사람들은 골로새서 편지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그 사람에게에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어려운 거예요. 초장부터 입이 막혀 버려요.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우리 안경 낀 남학생, 목사님이 묻는 게 아니고 학교에 선생님이 “애, 너 어느 집안 성씨야?” “이씨” “무슨 이씨?” 모를 때는 그냥 이 씨라고 하면 돼요. 그냥 이 씨라고 하면 이 씨는 가문 핏줄 안에 있지요. 그럼 뭐 안에 있지 않습니까? 뭐와 관계가 없지요? 그리스도 안 하고 관계없지요. 10분 쉬고 다음 시간에 하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나는, 저도 이씨, 경주 이 씨예요. 경주 이 씨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이란 말을 변경할 수 있느냐, 분명한 이 씨 집안 안에서 태어나서 이 씨는 혈족 안에서 태어났는데 왜 이 씨 안을 인정하지 않고 저기 먼 예수라는 유대인의 낯선 인물 안에 그것도 역사와 시간을 초월해서 왜 나사렛 예수란 청년 안으로 등기이전이 어떻게 그렇게 가능 하는가를 10분 쉬고 하겠습니다.